장성 '도시 브랜드 개발' 첫걸음…9개 이름 후보안 제시

개발용역 1차 중간 보고회…도시 대표 이름·디자인·서체 개발
최종안 도출해 지역민 선호도 조사…2차 중간보고회서 결과 발표

장성군이 새로운 도시 상징을 만들기 위한 '도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은 지난 6월 시작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도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 서체 등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개발한 브랜드를 홍보할 전략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표장 출원, 유지·보수 등도 추진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성군의 새로운 브랜드(BI·통합 이미지) 공모전을 벌여 총 913건(이름 754건·BI 159건)을 접수했다.

장성군은 1차 내부평가를 거쳐 주민·공직자·장성미술협회·장성문화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2차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입상작 4편을 발표했다.

장성군은 지역을 상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공모전 이후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을 하고 있다. 넉 달간 진행하는 개발용역에는 5600만원이 들어간다.

도시 브랜드 개발은 '핵심 전략 수립'→'이름 개발'→'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친다.

지난 7월에는 2주에 걸쳐 1240명을 대상으로 '장성군 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도시 브랜드 전문가·관계자 30여 명과 심층 면담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 1차 중간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사인 비아이앰플랜스가 장성군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도시 브랜드 핵심 전략을 공유했고, 모두 9개의 이름 후보군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장성군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 최종안을 만들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선호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장성군(군수 김한종·가운데)이 최근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도시 상징을 개발할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이후 통합 브랜드(BI) 개발 2차 중간 보고회와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보고회는 군민, 전문가, 사회단체, 공직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브랜드가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동참을"

윤병태 시장 '고향사랑의 날' 메시지…다음달 20~29일 고향사랑주간

"나주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의 고향사랑 기부 행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고향을 떠올리는 추석이 있는 달 9월과 사랑을 연상하는 4일을 조합해 의미를 더했다.

나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1호 기부자 한갑수 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배우 정보석,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 안세영 선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 이기석 재경나주향우회장, 김보곤 재광나주향우회장, 이주희 동신대총장, 정무경 전 조달청장 등 각계 각층이 동참, 목표액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다.

또 나주시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는 전국 각지의 출향 인사, 나주시를 응원하는 개인 기부자, 대학교, 농협, 공공기관 등 지역 간 상호교차 기부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기간을 고향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사랑 기부 참여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관에서는 답례품 전시와 함께 현장 기부 창구 운영, 고향사랑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운영, 읍면동별 향우 현장 기부 릴레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양한 고향사랑 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서 '양·한방, 구강·치매' 통합 의학 체험

8~14일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병원·보건소 등 130개 기관 참가
항노화뷰티관 등 8개 전시관 운영

대한민국 최고 건강 박람회를 내건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8일 장흥에서 개막한다.

장흥군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안양면 비동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연다.

올해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대학병원과 대학,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 130개 기관이 참가해 방문객들에게 통합 의학 체험을 선보인다.

박람회장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항노화뷰티관 등 모두 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서는 역대 박람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한방 전시, 명사 초청 건강 강좌 등을 만날 수 있다.

통합의학관에서는 양방·한방 내과, 만성질환 성인병, 구강검사, 치매검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홍채 검진, 근육신경조절술, 카이로프랙틱(대체 의학) 등 보완대체의학 체험이 진행된다.

항노화뷰티관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상담, 피부노화 검사, 두피마사지 체험, 아로마 손 마사지 등이 마련된다.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8~14일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박람회 모습. 〈장흥군 제공〉

각종 체험 외에도 박람회가 열리는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 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는 역사 전문가 최태성 강사의 '우리 역사 속의 의학 이야기' 강좌가 진행된다.

12일 오후 2시에는 오한진 박사 초청 건강 강좌 '젊음을 지키는 동안 습관'이 열린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박람회"라며 "박람회를 방문해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사람 중심의 통합의학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13일까지 소득·주거 '사회조사'

표본 828가구…12월 결과 공표

담양군은 오는 13일까지 '2023년 전남도·담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승인 통계조사인 사회조사는 담양군과 전남도가 함께 진행한다.

지역민의 주관적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담양군이 조사를 벌인 표본 가구는 모두 828가구이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면접조사를 한다. 조사표를 나눠준 뒤 응답자가 우편함에 넣어 회수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항목은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담양군 특성 항목 18개를 포함한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집된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경찰 교통 사망사고 예방

주요 교차로서 합동 홍보활동

화순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합동 홍보활동을 벌였다.

출근 시간대 화순읍 일대에서 진행된 안전 홍보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 화순군의회, 화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이 동참했다.

홍보는 화순읍 국민은행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중앙병원 사거리와 지역 파출소가 담당하는 주요 교차로 6곳에서 진행됐다.

화순경찰은 지난 6월부터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화순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명 발생했다. 이는 전년(2명)보다 5배 늘어난 수준이다.

박웅 화순경찰서장은 "화순경찰 모든 구성원이 주인 의식을 갖고 안전 홍보를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 바다낚시 어선, 지역경제 효자로

이용객 식당 등 소비 활발…누적 경제 유발 효과 4억8천만원

강진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들이 바다낚시를 위해 승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의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 따르면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은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전 6월 한 달 40명에서 유치 이후 7월 1206명, 8월 127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군에서 파악한 경제 유발 효과만도 누적액 약 4억 8000만원으로 마량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관광버스를 통한 낚시객 인센티브 지급,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 낚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마량항이 바다낚시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바다낚시 어선 유치 대수를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동함평 IC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완료

최근 설치를 마무리한 동함평 나들목 사거리 회전 교차로.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지난 5월 시작한 '동함평 IC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교차로 개선을 통해 지역민 교통안전을 높이고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함평군은 6억원을 투입해 교차로 개선사업을 벌였다.

올해 안에는 '군도 3호선(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신광면 '지방도(838호선)~국도(23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차례대로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사업 추진 때 공사로 인해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군민들이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